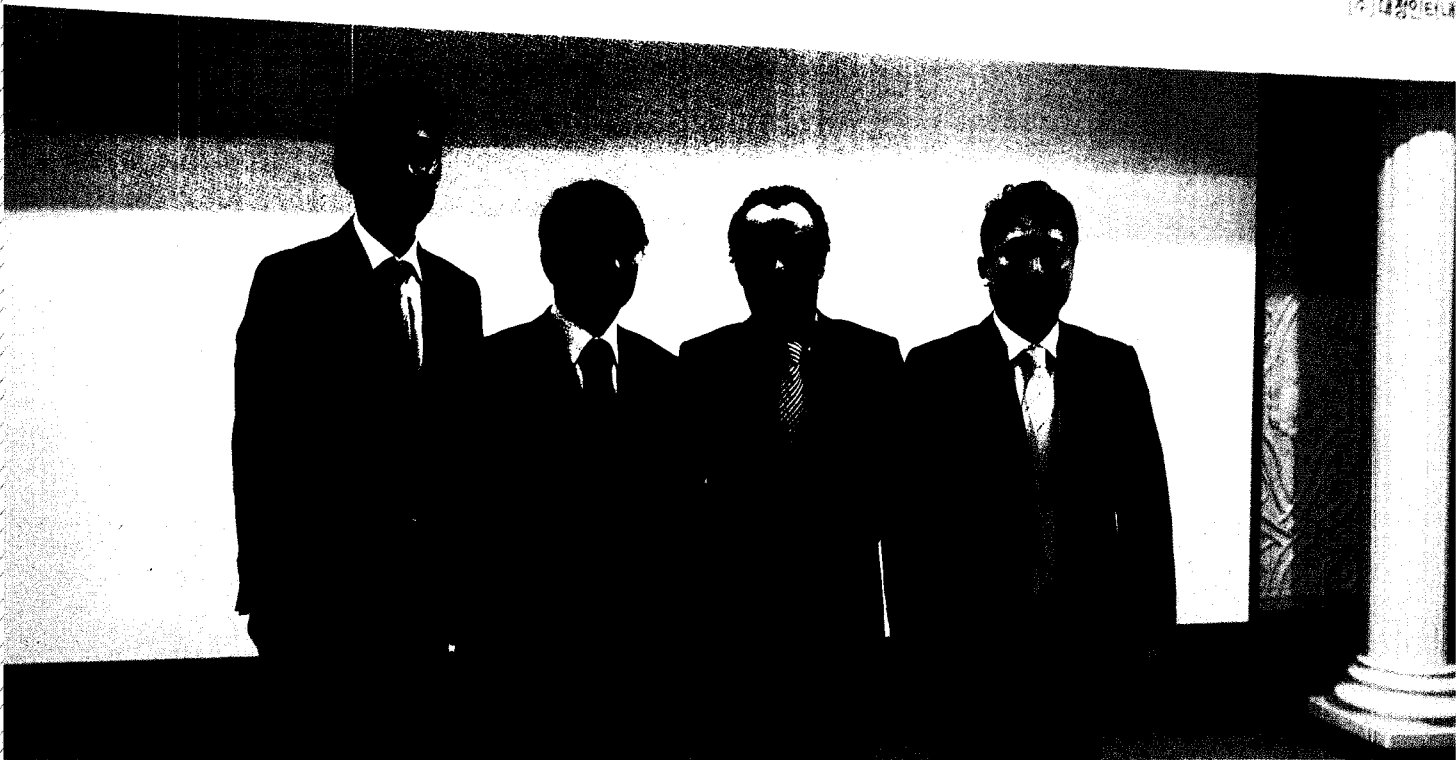


아주하이텍 총판계약 체결식

아주하이텍, 대정인터내셔널 굳은 파트너십 강조
국산 UV CTcP세터 '프리즘' 공급 개시

(주) UV-SETTER 프리즘 총판체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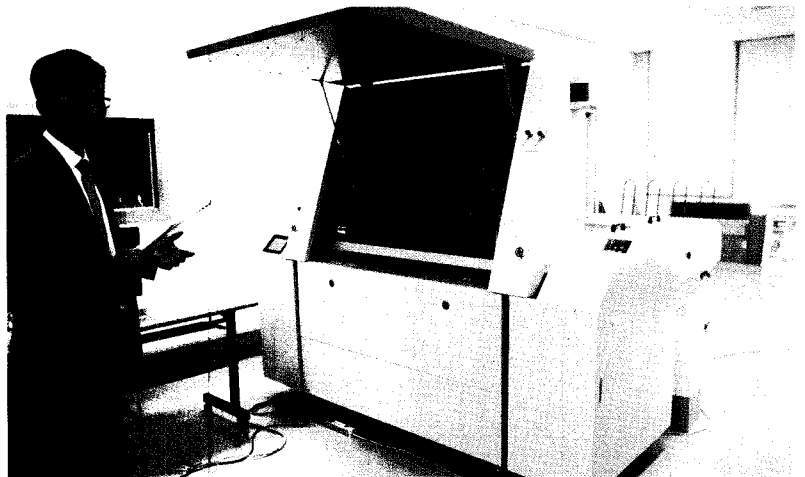
아주하이텍과 대정인터내셔널은 UV CTcP '프리즘'의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아주하이텍 강승진 이사, 정기영 이사, 대정인터내셔널 이영식 회장, 송갑선 사장

아주하이텍(주)(대표 최현호)은 지난 5월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본사 사옥 3층 회의실에서 (주)대정인터내셔널(대표이사 송갑선)과 UV CTcP세터 '프리즘'의 총판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프리즘'의 총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광원 조절 기술 및 레이저 소스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술력을 갖춘 아주하이텍과 인쇄장비 및 솔루션 공급 및 유통에서 실력을 갖춘 대정인터내셔널의 결합으로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된 '프리즘'의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술력과 유통의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 기대

가장 미세한 회로기판을 형성하고 있는 LCD 드라이버 IC기판인 COF회로필름 기판 검사설비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주하이텍이 인쇄용 CTP 세터 분야에 진출하기로 결심한 것은 관련 분야에 국산장비가 없고 관련된 원천기술을 자사가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특히, 인쇄관련 산업이 국가적인 기반산업이자 문화산업이라는 것을 인식, 뛰어난 국산장비를 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약 1년간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거쳐 '프리즘'을 개발, 출시하여 공급하게 되었다. 대정인터내셔널을 비롯, 국내 총판 대리점 2개사를 개설,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게 됐다.



CTP세터에서 후발이지만 기술력은 자부심

이날 행사에서 아주하이텍의 관계자는 “오늘 체결식이 형식상으로 총판계약 체결이지만, 아주하이텍과 대정인터내셔널은 오늘부터는 강하게 결속된 형제처럼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하는 깊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정인터내셔널의 이형식 회장은 “처음으로 개발되는 국산CTP세터이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하다”며 “좋은 장비를 최고의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하이텍의 관계자는 “CTP 세터로는 후발주자이지만 기술만큼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음을 자부하며 기술적인 우위를 유지,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전념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결과물인 UV 세터‘프리즘’은 반자동, 수직공급형 전자동, 수평공급형 전자동 모델이 개발 완료 됐으며 레이저 광원은 서멀, UV 등 관련기술을 이미 확보,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내년에는 바이올렛 장비의 출시도 계획하고 있으며 올해 열리는 최대의 인쇄전문전시회인 일본 IGAS에 출품하는 것을 시작으로 키페스(9월), All in China(11월, 중국 상하이), 드루파 2012(2012년 5월 예정)등에 계속해서 참가,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펼칠 계획이다.

국산 기술 ‘프리즘’ CTP 세터

아주하이텍이 순수한 국산기술로 개발한 ‘프리즘’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라인업의 구성이다. 다양한 인쇄 작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서멀세터는 830nm의 정밀도를 지니며 채널수는 80채널, 128채널, 192채널, 256채널로 다양해 경쟁사의 주력인 62채널에 비해 선택의 폭이 넓다고 소개했다. 출력은 1W이다. UV 세터의 경우, 405nm의 정밀도를 지니며 80채널, 128채널, 192채널 및 256채널을 갖고 있으며 출력 파워도 100mW, 200mW, 650mW으로 다양하다. 생산능력은 시간당 35~60장에 달한다. 작업이 가능한 최대 면적은 940nm × 1140nm이다.

‘프리즘’은 고정밀 모션제어 기술 및 레이저 컨트롤 기술을 적용하여 노광 품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품질이 인증된 정밀 부품을 사용, 고장률이 극히 낮으며 내구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하이텍은 ‘프리즘’이 갖는 특징에 대해서 첫째, 엑스터널 드럼(EXTERNAL DRUM)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정밀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장비의 설계, 개념이 도입되어 정밀한 설계, 제작을 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노광을 구현할 수 있으며, 둘째,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렌즈, 레이저 다이오드 드라이버 등으로 구성되는 레이저의 주요 구성을 국산화하여 정밀도를 확보하는 한편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 셋째, 대면적에 정확한 이미지를 노광하는 것이 핵심인 모션 제어기술에 있어서 자체기술로 나노 급 위치해석기술을 확보해 뛰어난 초정밀 이미징을 구현할 수 있다.

신속한 장비공급과 완벽한 AS로 맞춤형 고객 서비스

대정인터내셔널(대표 송갑선)의 송갑선 사장은 “아주하이텍의 CTP세터 총판으로서 우수한 장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2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라도 출동할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어서 고객들이 편의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20대 이상의 CTP 세터를 공급할 것을 자신하고 대정인터내셔널은 일부에서 국산 장비의 출시가 다소 늦었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판매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앞으로 CTP세터의 판매와 함께 적절한 시기에 CTP 판재의 공급도 본격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대정인터내셔널은 현재 G7 마스터 컨설팅 및 심사, 고품질 인쇄물 수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비롯하여 워크플로 시스템과 컬러매니지먼트 유지, 보수 분야에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해 왔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